

2025 | **아:름**

ac.ieum.or.kr
전문예술교육^{연극}

예술창작 아카데미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
(전문예술교육 연극)

결과자료집



목차

프롤로그	4
사업소개	8
교육과정 소개	
공통교육	15
창작교육	17
특별교육	24
성과발표회	27
에필로그	
참여자 미니인터뷰	62
참여자 수업일지	66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소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역량강화 및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등 장애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비)장애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는 교육목적과 참여대상에 따라 창작자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과정

장애예술인 대상 다양한 실험과 탐색, 공동창작 등 감각과 협업 기반 예술 교육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신진 장애예술인 대상 예술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 기반의 체계적인 장르별 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 기획, 교육, 접근성 관련 매개인력 양성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소개

전문예술교육 과정은 신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 연계 교육 과정입니다. 참여자는 전공 분야별 실기 수업과 이론 교육,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지고, 자신의 창작 방향과 표현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진 및 현장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개별 특성과 창작 성향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며, 동료 예술인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 예술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프로로그

프로로그



예술은 작은 점에서 시작된다

교육총괄PM 김수연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모두가 꿈을 꾸다.

그 꿈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결핍 속에서, 누군가는 우연한 계기에서 또,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반복 속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한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 담긴 노력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이번 교육에 모인 장애인들 역시 각기 다른 이야기와 방식으로 꿈에 다가가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조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이야기에 반짝이는 눈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욕심이 생겼다. 발음을 더 정확하게,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턱관절에 염증이 생길 만큼의 연습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지금 ‘작지만 배우라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시력을 지키기 위한 수술을 받은 뒤, 부모로부터 “절대 TV를 보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었다. 그는 화면 대신 소리에 집중했다. TV를 등지고 앉아 흘러나오는 대사와 숨소리, 감정을 따라 하던 습관은 그를 어느새 연기자라 꿈꾸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요즘은 아이돌을 꿈꾸는 어린이들이 참 많아졌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꿈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꿈조차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번 만남은 그런 이들이 마음속에 간직해 온 꿈을 아주 소박한 계기에서부터 꺼내어 놓는 시간이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호기심과 우연한 경험에서 시작된 꿈들이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비추며 조금씩 자라났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서로를 격려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가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시각장애가 있는 예술가다. 그의 어린시절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 날 수업 중 교실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났지만,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선생님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진 특별한 청력으로 쥐를 찾아보렴.”

아이는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쥐가 숨어 있는 위치를 알아냈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은 다시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교실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단다. 너에겐 특별한 귀가 있어.”

그 한마디의 격려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

예술은 거창한 출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점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점은 어느 순간, 삶을 바꾸는 선이 된다.

이번 시간은 그 작은 점들이 모여 예술이 되어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한 시간이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토양 위에서

움직임 전문강사 홍혜전(국립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모든 지역에서 예술은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특히 청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장애예술,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은 시작부터 다른 질문을 안고 출발했다.

서울과 함께 청주에서 진행된 「2025 아: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 연극」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과연 무엇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묻는 시간이었다. 현실은 곧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전문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예술적 역량을 갖춘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움직임을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정작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창작을 이어가고 싶어도 이를 함께 지지해 줄 구조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조건 속에서 ‘준비된 예술가’를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의 경험과 역량의 폭은 넓어졌고, 교육과정은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다. “이 교육은 전문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예술교육일까, 아니면 문화 향유와 표현을 중심에 둔 문화예술교육일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무엇을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교육이 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운영진과 강사진 모두가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역에서 장애예술인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전문예술인을 ‘발굴’하거나 ‘양성’하는 일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청주에서의 이 과정은 이미 잘 갖춰진 예술 생태계 안으로 누군가를 편입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토양 위에서 교육과 창작의 기반을 함께 다져야 하는 작업에 가까웠다.

이러한 현실은 창작의 순간마다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진 극작가와 작업 역시 청주까지의 이동과 접근성이 쉽지 않아, 창작 현장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고 화면 너머로 작업 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극작가와 마주 앉아 장면을 이야기하고,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확장해 가는 그 짧은 시간만 중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아쉬움도 남았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역량의 문제라기 보다, 접근성의 조건이 곧 창작의 조건이 되는 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목표로 삼기보다, 각 참여자가 가진 감각과 표현 방식이 조금씩 예술로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고, 창작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히 둘로 나누는 접근이 오히려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발달장애 참여자들에게 이 과정은 전문예술인을 향한 훈련인 동시에, 자신의 감각과 언어를 처음 발견해 가는 예술교육이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교육은 늘 그 사이를 오가며 조정되어야 했다. 참여자 간 표현 역량의 차이, 수업 속도를 맞추기 위한 고민, 접근성 지원이 부가적인 배려가 아니라 교육의 중심 조건이 되어야 했던 이유도 이 과정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결국 이 과정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교육이라기보다, 질문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시간에 가까웠다.

‘지역에서 발달장애 예술인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전문성과 접근성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교육은 누구를,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데려가야 할까.’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다. 이 과정이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지속되고 기회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인으로서의 가능성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특히 ‘지역’과 ‘장애’라는 이중의 조건 속에서는 연결된 시간과 반복 가능한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은 질문 앞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다. 청주에서 시작된 이 시도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다음 질문과 다음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이 과정의 첫 장으로 남긴다.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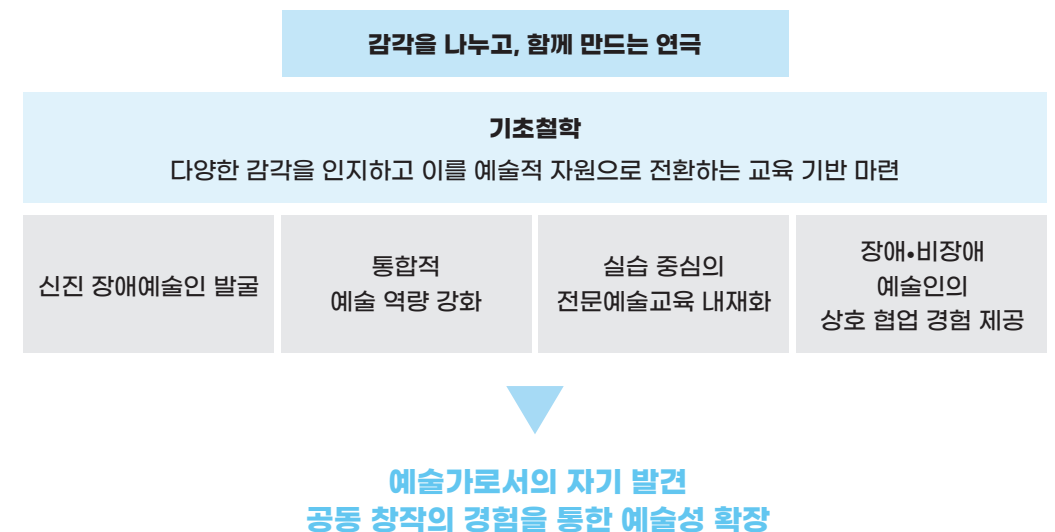
본 사업은 연극이 지닌 종합 예술적 특성과 공동 창작의 본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의 신진 장애 예술인이 자신의 고유한 감각을 예술의 언어로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각 기반 창작 연극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극은 생각, 말, 움직임, 글쓰기, 리듬, 템포 등 여러 표현 수단이 통합된 예술 장르로서, 본 프로그램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청각적·촉각적 경험(진동, 리듬, 촉각 등)을 교육의 핵심 매체로 채택하였다. 이는 장애 유형을 넘어서는 직관적·포괄적 예술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참여자 각자가 지닌 감각의 차이를 창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개별 창작을 넘어 타인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연극의 공동 창작 과정은 참여자가 예술가로서의 표현력·자존감·사회적 확장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 수업을 넘어, 참여자가 스스로 창작을 이끌어가는 자립적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수도권(홍익대학교)과 충청권(서원대학교)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 사업방향



○ 운영 체계 및 조직

본 사업은 수도권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청권의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두 기관은 교육 세부 기획 및 운영, 행정 지원, 접근성 지원, 전문 스태프 협업 등 각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다층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강사(교수진), 멘토단, 운영진, 접근성 지원 인력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각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교육의 품질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PM	사업수행 책임 총괄	- 프로그램 기획, 운영전략 설계 - 장애예술인들의 전문화 기획	1	원자승
교육운영	교육과정 세부 기획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전문가 섭외 - 장애예술인 관리,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 기획 및 섭외	2	김수연 김영미
기획운영	참여자 관리 / 모니터링 접근성 서비스 운영	- 프로그램 총괄 운영 및 인력배치, 예산집행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아카이빙 매뉴얼 구상 및 운영 - 프로그램 이미지·방향성 구축	1	서미정
		- 참여자 장애유형별 접근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세부 과목별 접근성 보조인력 배치 운영	2	윤소희 김민솔

○ 교육 대상 및 참여 규모

- **교육 대상**
만 18세(2006년생) 이상 신진 장애예술인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홍익대학교(수도권)		서원대학교(충청권)
	극작	연기	움직임
모집인원	(최대) 5명	(최대) 10명	(최대) 10명

- **모집 기간**
2025년 8월 22일(금) ~ 9월 12일(금)
(1차 서류, 2차 면접 후 9월 22일 최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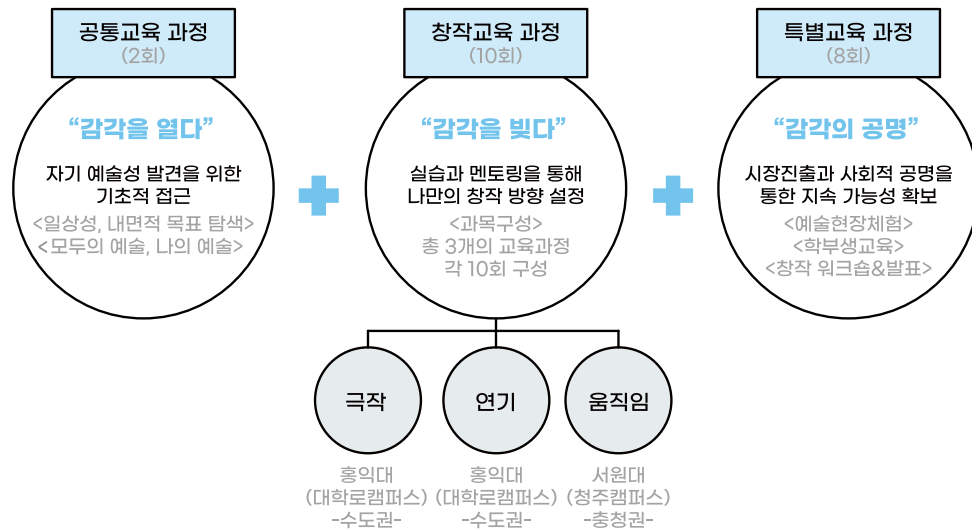
○ 주요 강사진

구분		전문강사	내용
공통교육		홍혜전, 최푸름	주제: 예술의 개념, 모두의 예술
		김수연, 김민솔	주제: 나의 예술, 나의 콘텐츠
창작교육	극작	교수: 이윤정 멘토: 황혜정, 박예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멘토 ※ 수어통역사 배치, 발달장애인 교육 도우미 배치
	연기	교수: 윤성호, 지현준 멘토: 신강수, 최재영	
	움직임	교수: 홍혜전 멘토: 윤보경, 최푸름	서원대학교 문화예술체육대학 교수+멘토 ※ 발달장애인 교육 도우미 배치
특별교육		김수연, 이윤정, 최재영	세미나, 공연관람, 대학수업 참관 등
		원자승, 홍혜전	지역교류 워크숍, 창작워크숍, 성과발표회

○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체계

- ‘공통교육-창작교육-특별교육’ 3단계 교육구조를 구축하여 참여자가 감각 탐색에서 창작 실천, 그리고 무대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예술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마련하였다.
- 단계별로 교육 목표·학습 방식·평가 지점을 구분하여,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창작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각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와 성격에 따라 실습·창작·토론·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모드를 적용하였다.

“감각을 열고, 함께 만드는 연극”



○ 교육과정 운영 일정

- 2025년 9월 27일(토) ~ 12월 15일(월) 총 20회
- 공통교육 2회, 창작교육 10회, 특별교육 8회
 -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및 공통교육1): 9월 27일(토)
 -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 12월 15일(월)

○ 프로그램 상세 일정

교육과정 (회차별)	전문예술교육 연극		
	홍익대학교(수도권)		서원대학교(충청권)
	극작	연기	움직임
공통교육①	9/27(토) *주제: 예술의 개념, 모두의 예술		
창작교육①	10/1(수) 14시	9/29(월) 18시 30분	10/10(금) 18시
창작교육②	10/15(수) 14시	10/13(월) 18시 30분	10/17(금) 18시
창작교육③	10/22(수) 14시	10/20(월) 18시 30분	10/24(금) 18시
창작교육④	10/29(수) 14시	10/27(월) 18시 30분	10/31(금) 18시
창작교육⑤	11/5(수) 14시	11/3(월) 18시 30분	11/7(금) 18시
특별교육①	11/11(화) 학술프로그램	11/18(화) 학술프로그램	10/3(금) 전시관람
창작교육⑥	11/12(수) 14시	11/10(월) 18시 30분	11/14(금) 18시
특별교육②	11/15(토) 공연관람		
창작교육⑦	11/19(수) 14시	11/17(월) 18시 30분	11/21(금) 18시
특별교육③	11/18(화) 대학원 수업 참관	11/14(금) 대학원 수업 참관	12/6(토) 대학 수업 특강
창작교육⑧	11/26(수) 14시	11/24(월) 18시 30분	11/28(금) 18시
특별교육④	11/29(토) 창작워크숍1 *팀별:작가&출연자		
창작교육⑨	12/3(수) 14시	12/1(월) 18시 30분	12/5(금) 18시
특별교육⑤	12/6(토) 창작워크숍2 *팀별:작가&출연자		
공통교육②	12/7(일) 극작/연기, 12/15(월) 움직임 *주제: 나의 예술, 나의 콘텐츠		
창작교육⑩	12/10(수) 14시	12/8(월) 18시 30분	12/12(금) 18시
특별교육⑥	12/13(토) 창작워크숍3 *팀별:작가&출연자		
특별교육⑦	12/14(일) 지역교류 워크숍		
특별교육⑧	12/15(월) 성과발표회&수료식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 소개 공통교육

○ 공통교육

본 프로그램은 장애와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예술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움직임 탐색을 중심으로 ‘모두의 예술’에 대해 사유하며, 감각 중심 창작의 철학과 미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참여자 각자의 일상과 존재를 예술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예술성과 향후 예술적 목표를 설계하도록 구성된 기초 단계의 창작 교육이다.

공통교육 과정
(2회)

“감각을 열다”

자기 예술성 발견을 위한
기초적 접근

<일상성, 내면적 목표 탐색>
<모두의 예술, 나의 예술>

○ 공통교육(1)

강의주제	구분	수업일정	담당교수
예술의 개념, 모두의 예술	통합수업 (22명)	09.27.(토) 14:00~16:00	홍혜전 최푸름

1장 신체부위 중심으로 몸풀기

- 참여자들이 차례로 몸풀기 동작을 시범 보이고 이를 함께 따라 하며, 모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움직임의 기본 요소를 익히는 과정이다.

2장 움직임 탐색을 통한 ‘모두의 예술’ 사유하기

- 다양한 움직임 탐색을 통해 신체와 감각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모두의 예술을 경험한다.
- 공간 높낮이, 신체 접촉과 이동을 활용해 움직임의 영역과 다양성을 넓힌다.
- ‘거울되기’를 통해 타인의 움직임과 감정, 호흡, 리듬에 대한 공감과 감각 인식을 확장한다.
- 소리를 듣고 반응하거나 직접 소리를 내며 움직임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소리와 호흡이 움직임의 리듬과 질감을 형성하는 원리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 공통교육(2)

강의주제	구분	수업일정	담당교수
나의 예술, 나의 콘텐츠	극작/연기 (15명)	12.07.(일) 14:00~17:00	김수연
	움직임 (7명)	12.15.(월) 09:00~12:00	김민솔

1장 예술은 작은점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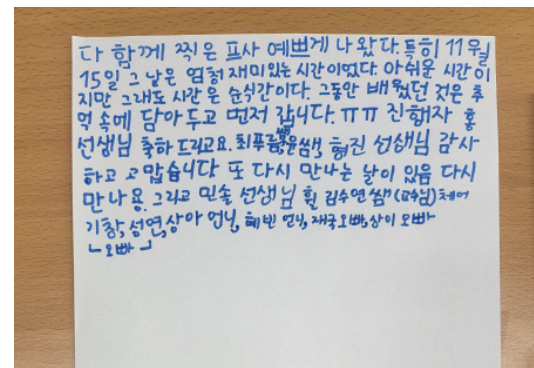
- 예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감정의 표현'에서 출발한다.

2장 나의 일상과 존재를 예술로 바라보기

-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

3장 나의 예술 목표 설계하기

- 예술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나만의 방향성을 세우는 데서 성장한다.



○ 창작교육

본 프로그램은 연극 창작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극작·연기·움직임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창작 구조를 지향한다.

각 영역은 참여자의 감각 인지에서 표현 확장, 창작 실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학습 흐름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실습 중심의 교육, 개별 피드백, 그룹 협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도

연기 | 윤성호 · 지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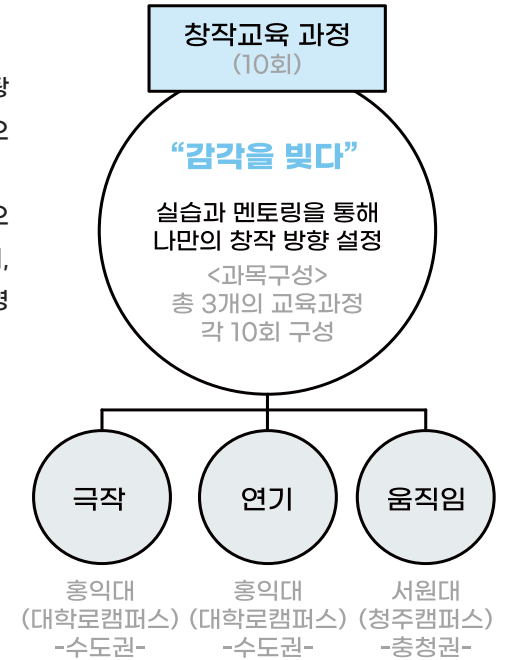
극작 | 이윤정

움직임 | 김영미 · 홍혜전

멘토단 | 황혜정 · 박예슬 · 신강수

최재영 · 윤보경 · 최푸름

발달장애인 교육 도우미 | 김태우 · 김정연 · 김형진



극작 참여자 총 5명

권민, 김은균, 김하성, 안덕용, 유두선



연기 참여자 총 10명

김미나, 박정섭, 박찬미, 안희정, 임윤희, 전현우, 정유미, 지혜연, 한태희, 현정희



움직임 참여자 총 7명

박상아, 박혜빈, 이기창, 이상아, 이재국, 조성연, 조은누리

극작분야

빛다. 나의 언어를 '빛다.'

극작 분야는 나의 경험과 감각을 글의 재료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었다
떠오르는 이미지, 남아 있는 기억, 마음에 남은 말들을 단어로 채집한 뒤
그 조각들을 문장과 장면으로 직접 빚어냈다.

인물을 설정하고 사건의 흐름을 만들며,
짧은 창작극으로 완성해 보는 과정은 참여자마다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발견하고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내용

회차	일자	교수/멘토	세부내용
1회차	10.01.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오리엔테이션 및 희곡 개론 - 자기소개 및 희곡 개념 탐색 - 6-line 습작 및 발표 -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과제 안내
2회차	10.15.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주제와 소재 개발 - 과제 발표 및 주제 탐색 - 실비명 찾기 & 글감 스케치 - 글쓰기 방향성 점검
3회차	10.22.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보편타당한 주제 선정 및 트리트먼트 작성 실습 - 스트레이트 기사 스크랩 발표 - 사회·정치 팩트 기반 리서치 - 단막극 구조 이해 및 트리트먼트 실습
4회차	10.29.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초안 빌드업 - 단막극·무용극 예시 분석 - 초안 낭독·역할 바꿔읽기·합평 - 작품 유형 결정
5회차	11.05.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10분 극 초고 쓰기 - 초고 점검 & 멘토링 - 갈등·구조·형식 강의 - 초안 리라이팅 전략 수립
6회차	11.12.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10분극 초고 디벨롭 및 리라이팅 - 발전된 초고 낭독 및 합평 - 성과발표회용 대본 정리 - 갈등 요소 점검(과제 안내)
7회차	11.19.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갈등(희곡 필수 요소)'을 이해하고 습작에 적용해보기 - 개인 프로젝트 진행도 점검 - 갈등 중심 습작 합평 - 사건 확장·3자 갈등 구성 연습
8회차	11.26.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갈등' 심화 학습 - <인형의 집> 마지막 장 분석 - 목적·갈등·행동 빌드업 훈련 - 작품 디벨롭 및 합평
9회차	12.03.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구조 - 구조 습작 쓰기 - 구조 습작 발표 - 좋은 시작 중간 끝이란
10회차	12.10.	이윤정/박예슬, 황혜정	극작가와 연극 - 극작가의 36개 조항(자료) - 마무리 리뷰

연기분야

하다. 예술가로서 표현을 창조 '하다.'

연기 분야는 자신의 감각을 다시 여는 훈련에서 시작했다.
호흡의 깊이, 발의 무게, 시선의 방향,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인식하며
'지금 여기'의 감각을 연기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혔다.

즉흥을 통해 감정의 파동을 따라가 보고,
타인의 리듬을 관찰하며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나답게 연기하는 법'을 찾아갔다.



강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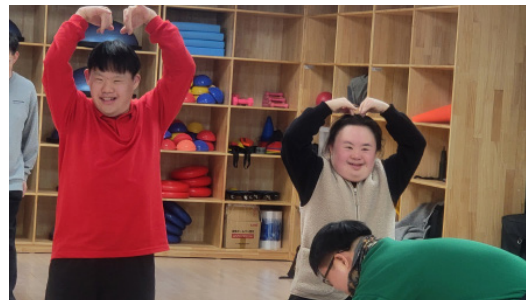
회차	일자	교수/멘토	세부내용
1회차	09.29.	지현준/신강수, 최재영	공간과 신체감각 적용에 대한 실습 - 공간 만들기 및 독백 대사 적용 - 이미지 기반 신체감각 찾기 및 적용
2회차	10.13.	지현준/신강수, 최재영	공간을 잡는 연기 ↔ 푸는 연기 실험 - 공간을 잡는 힘 / 존재하는 힘 유지 - '잡는 연기'와 '푸는 연기' 훈련 - 자기 언어로 말하기
3회차	10.20.	지현준/신강수, 최재영	연기적 상태 생성과 자기 인식 향상 - 스트레칭·관찰·확대·축소 등 워업 - '연기적 상태'로 신체를 잡고 대사 표현 - 개별 특성 기반 표현 시도
4회차	10.27.	지현준/신강수, 최재영	지정 대사를 통해 자신만의 연기 실습 - 멘토-멘티 그룹별 대본 연기 제작 - 감정 잡기·풀기, 촉각·시각 연기 훈련 - 자연스러운 말하기 연습, 대사 숙지 안내
5회차	11.03.	지현준/신강수, 최재영	연기적 상태에 붙여 연기하기 - 스트레칭·윙크살인마 등의 몸풀기 감각 훈련 - '연기적 상태'에 대사 붙이기 연습 - 그룹별 독백 멘토링 및 5주차 마무리 조언
6회차	11.10.	신강수/윤성호, 최재영	지정 대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연기해보기 - 지정대사 자유표현 연습 - 완전 숙지 전 움직임·반응 탐색 - 상대 배우 대사 듣고 움직임 만들기
7회차	11.17.	윤성호/신강수, 최재영	지정 대본 분석, 독백 연습① - <집으로> 대본 읽고 분석하기 - '사실과 질문' 기법으로 대본 분석 - 인물 이해·관계 변화 탐색
8회차	11.24.	윤성호/신강수, 최재영	지정 대본 분석, 독백 연습② - <그날 이후> 대본 읽고 분석하기 - 독백 발표 & 성취도 점검 - 개별 맞춤 피드백 제공
9회차	12.01.	윤성호/신강수, 최재영	지정 대본 분석, 독백 연습③ - <동그라미 발레리나> 대본 읽고 분석하기 - 독백 발표 & 성취도 점검 - 개별 맞춤 피드백 제공
10회차	12.08.	윤성호/신강수, 최재영	감각의 디테일로 완성하는 연기 - 독백의 내적 사실과 말하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심화 - 개별 맞춤 피드백 제공

움직임분야

있다. 각자의 움직임을 우리의 장면으로 '있다.'

움직임 분야는 몸이 지닌 감각을 다시 꺼내어
나와 타인, 그리고 공간을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과정이었다.
무게 중심의 이동, 속도와 리듬의 변화, 멈춤과 흘러감의 차이를 느끼며
각자의 몸이 가진 고유한 흐름을 발견했다.

서로의 움직임을 이어받고,
하나의 제안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며 변화하는 장면을 만들면서
'관계 속에서 움직임이 완성된다'는 경험을 쌓았다.



강의내용

회차	일자	교수/멘토	세부내용
1회차	10.10.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즉흥적 감각 반응으로 신체 표현 확장 - 위밍업 및 신체 감각 깨우기 - 관찰·모방 중심의 기본 움직임 연습 - 짧은 리듬 움직임 탐색
2회차	10.17.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즉흥으로 만드는 집단 움직임 - 도구(고무공 등)를 활용한 즉흥 움직임 - 공간 속 이동 동작 탐색 - 상대 움직임 관찰 및 모방 기반 협력 연습
3회차	10.24.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즉흥을 통한 창의적 움직임 표현 - 바닥을 활용한 움직임 탐색 - 이동과 정지의 리듬 훈련 - 감정 기반 움직임 실험(슬픔·분노 등)
4회차	10.31.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즉흥 상황을 통한 신체 움직임 탐색 - 페어 즉흥(2인 1조) 협력 움직임 - 리더-팔로워 구조 훈련 - 움직임 흐름 만들기 기본기
5회차	11.07.	최푸름/윤보경	연결 동작을 탐색하며 자기 움직임을 체득 - 도구를 활용한 고급 즉흥 움직임 (짐볼 중심) - 이동 동작 확장(속도·높낮이·방향 전환) - 관찰자-퍼포머 역할 체험
6회차	11.14.	최푸름/윤보경	나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연결 움직임 심화 - 몸 중심축 잡기, 상하·좌우 무게중심 변화 - 바닥·공간·몸을 연결하는 확장 움직임 - 군무적 패턴 실험
7회차	11.21.	윤보경/최푸름	도구를 활용한 즉흥 움직임과 집단 호흡 탐색 - 짐볼 즉흥, 거울놀이, 군집 리듬 훈련 - 즉흥적 움직임 창작 능력 강화 - 공연환경 적응(조명OFF·플래시 활용)
8회차	11.28.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리듬·높낮이 변화를 통한 즉흥 움직임과 공간 확장 - 즉흥적인 동작 제시와 연결 과정을 통해 움직임을 확장 - 다양한 리듬·속도·높낮이를 활용한 신체 표현 능력 향상 - 소그룹 및 전체 활동을 통해 공간 활용과 협력적 움직임을 경험
9회차	12.05.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심화창작 구성 개발 - 모방과 반복활동을 통한 타인의 움직임 관찰 - 이동 및 즉흥 움직임을 각각 방식으로 변주 확장 - 반복을 통한 자신감과 몰입도 향상
10회차	12.12.	홍혜전/윤보경, 최푸름	장면구성 및 발표준비 - 장면단위 구성 및 공연 정리 - 도구 및 솔로 움직임을 통한 표현방식 정리 - 발표를 전제로 한 움직임 정리

○ 특별교육

본 프로그램은 창작 수업을 통해 형성된 창작 역량을 실제 예술 현장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단계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공연 제작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창작·감상·분석·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연예술 제작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분야별 (극작·연기·움직임) 활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 참여와 상호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 간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연·공연 관람·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적 자극을 접하며 창작 관점과 작품 해석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또한 폭넓게 확대된다.

특별교육 과정
(8회)

“감각의 공명”

시장진출과 사회적 공명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예술현장체험>
<학부생교육>
<창작 워크숍&발표>



○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

분야	일자	담당교수	주요내용	장소
극작	11.11.	김수연	세미나&학술프로그램 <명동 人문학: 스토리 텔링> (이단비 번역가/드라마투르그)	명동예술극장
	11.18.	이윤정	대학원 수업 참관 <각색과 번역>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수업 (이윤정 교수)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808호
연기	11.18.	김수연	세미나&학술프로그램 <명동 人문학: 스토리 텔링> (임도완 연출가)	명동예술극장
	11.14.	최재영	대학원 수업 참관 <연기실습2>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수업 (우여진 교수)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605호
움직임	10.03.	김수연	전시관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도슨트 프로그램> (각자의 취향과 호기심을 발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2.06.	홍혜전	대학 수업 특강 <학부생들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문화예술경영 학부생: 팀워크 프로그램(관찰,탐색)	서원대학교 제1학생회관 102호



○ 통합/팀별 프로그램 구성

분야	일자	전문강사	주요내용	장소
통합	11.15.	김수연	공연 관람 해외초청작<연극: 라스트 호프> 모두예술극장 기획 공연 관람	모두예술극장
	12.14.	홍혜전	지역교류 워크숍 참여자들의 창작 능력 향상에 대한 점검 및 지역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605호
팀별	11.29.	원자승 홍혜전	창작워크숍 1 - 창작교육을 기반으로 한 장면발표 준비 - 극작에서 5개의 장면대본 완성 - 창작극(극작)과 배우(연기·움직임)로 팀을 구성하여 작품 제작의 기초를 마련하는 제작 워크숍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605호
	12.06.	원자승 홍혜전	창작워크숍 2 창작극(극작)과 배우(연기·움직임)를 중심으로 팀별 작품을 구체화하는 제작 워크숍	
	12.13.	원자승 홍혜전	창작워크숍 3 창작극(극작)과 배우(연기·움직임)를 기반으로 팀별 리허설을 진행하는 제작 워크숍	서원대학교 제1학생회관 102호 & 비대면(zoom)활용)

○ 성과발표회

교육 결과 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술성과 표현력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창작 성과를 확장한다. 성과발표회는 「나와, 너와, 우리의」를 주제로, 연극이라는 협업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개인의 경험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창작의 과정을 담아낸다. 극작·연기·움직임으로 이루어진 전문교육의 성과는 연극 공연으로 실현되어 참여자의 창작 성취감을 높이며, 비장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적 교류와 포용의 장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확장하고, 향후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구분	시간(분)	세부 사항	담당
(대본별) 준비 및 리허설	10:00~12:00 (120')	· 장면 리허설 · 창작극①,② · 분장 및 의상 준비	총괄감독: 원자승 교수: 이윤정, 윤성호 멘토: 신강수, 최재영, 황혜정, 박예슬
	12:00~13:00 (60')	점심식사	· 스탭파트 수정 및 정리
	13:00~14:00 (60')	· 장면 리허설 · 창작극③,④,⑤ · 분장 및 의상 준비	총괄감독: 김수연 멘토: 최푸름, 윤보경
총 리허설	14:00~15:50 (110')	· (전원)리허설 (* 무대 정리 및 분장 수정 포함)	총괄감독: 원자승
성과 발표회 (수료식)	15:50~16:00 (10')	· 관객입장	
	16:00~16:10 (10')	· 개회(사업 소개)	
	16:10~16:30 (20')	· 독백(연기)리딩	연기 참여자
	16:30~17:20 (50')	· 창작극 리딩(5) (* 옴니버스 형식)	참여자 전원
	17:20~17:30 (10')	· 관객퇴장 및 객석 정리	
	17:30~18:00 (30')	· 수료식 - 라운드 테이블 - 수료장 증정	진행: 원자승
정리	18:00~19:00 (60')	· 철수	



나와

독백 대사 리딩

수업 중 연습한 독백을 시연하는 무대
감각에서 출발한 문장이 목소리와 호흡을 만나며 ‘나’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발표이다.

안톤체홀 <갈매기> 中 니나

안희정, 임윤희, 정유미, 지혜연, 한태희, 현정희

무대 위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면서도, 배우로서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인물의 내면을 다루는 장면으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면서도 삶과 무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 ▷ ‘연기적 상태’를 유지하며 감정선을 끊지 않는 발화 훈련
- ▷ 좌절 → 수용 → 결심으로 이어지는 감정 변곡점 설계
- ▷ 미세한 시선·호흡·무게중심 변화로 내면을 신체화하는 훈련

시미즈 쿠미오 <분장실> 中 여배우C

김미나

인물이 타인을 향해 날카롭게 평가하고 조롱하며 감정을 분출하는 장면으로
허세·열등감·상처가 공격적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 ▷ 공격적 대사의 이면(불안·결핍·동경)을 분석하여 감정의 층위를 확보
- ▷ 표정/발화 톤만이 아닌 거리·각도·몸의 긴장도 변화로 감정 표현
- ▷ 강한 감정 상태에서도 상대·공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작용 훈련

윌리 러셀 <리타 길들이기> 中 리타

박찬미

사회적 계층과 언어 습관에 대한 인물의 자각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말’이 단순 표현이 아닌 정체성과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 언어 습관(속어·비속어)이 인물의 계층·교육·세계관을 드러내는 요소임을 분석
- ▷ ‘단어’가 아닌 ‘상황’으로 말하게 하는 훈련(대사 속 행동 찾기)
- ▷ 같은 문장을 다양한 목적(설득/반항/유혹/방어)으로 발화하는 변주 훈련

이보람 <멸망의 로맨스> 中 개

박정섭

인물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두며 냉소적으로 말하는 장면으로
상대의 호의에 대한 불신과 관계의 불균형이 드러난다.

대사 자체보다 표정과 몸짓(수어 포함)을 통해 ‘거부’와 ‘방어’를 선명하게 전달하며,
감정의 온도와 관계의 거리감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 ▷ 냉소·거부·방어의 감정을 과잉 표현 없이 ‘선 긋기’ 행동(표정·수어·몸)으로 구현하는 훈련
- ▷ 관계 분석(상대와 나의 권력/거리/의존)을 바탕으로 표현 강도·거리·시선·손동작의 온도를 조절하는 훈련
- ▷ 상대의 반응을 받고 표현하는 상호작용 훈련: 일방적 독백이 아닌 상호작용형 독백 구현

이해영, 이해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中 동구

전현우

인물이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직면하며, 타인에게 강하게 외치는 장면으로
‘희망’이라는 말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삶의 압박이 큰 상태가 드러난다.

- ▷ 강한 감정을 ‘소리’로만 표출하지 않고, 목적·상대·상황을 갖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훈련
- ▷ 감정 폭발 장면을 “한 번에 끝까지”가 아니라 감정 단계(예: 억눌림→폭발→정리)로 나누어 반복 연습하여 안정적으로 수행
- ▷ 긴 대사도 단어 암기 중심이 아닌 핵심 키워드/감정 목표/행동 단위로 분절하여 이해하고 발화하도록 훈련



너와

창작극 리딩

극작반이 집필한 단막극을 바탕으로 각 파트의 조각들을 함께 엮어 구성한 짧은 리딩 공연
각자의 언어와 움직임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맞춰지며
‘나’의 작업이 ‘너’를 통해 확장되는 순간을 담아낸다.

<집으로> / 작 · 유두선

김민호 역 / 박정섭
강수경 역 / 박찬미
수어통역 / 한태숙
지문 및 해설 / 신강수

<그 날 이후> / 작 · 안덕용

지훈 역 / 전현우
민수 역 / 정유미
한코치 역 / 한태희
지문 및 해설 / 최재영

<백분토론> / 작 · 김은균

조현아 PD, 한예슬 조명기사 역 / 현정희
허미나 작가, 손석희 역 / 임윤희
김유미 논객 역 / 지혜연
박정희 논객 역 / 안희정
지문 및 해설 / 김정연

<동그라미 발레리나> / 작 · 권 민

수연엄마 역 외 / 김미나
나연 역 / 이윤미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재학생)
소원 역 / 이지은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재학생)
수연 역 / 염정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재학생)

집으로

작 · 유두선

연극 <집으로>는 지하철 역사 폐업 상가에서 하루 밤을 보내는 홀리스 여성과 그녀를 내보내야 하는 역무원의 짧은 만남을 그린 10분 단막극이다.

심야 시간, 지하철 6호선 청구역 폐업 상가.

강수경이 여느 때처럼 이곳에서 밤을 보내려 할 때, 역무원 김민호가 나타난다. 상부 지시로 자정까지 이곳을 봉쇄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수경은 떠나기를 거부한다.

규정과 생존, 속죄와 안전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떠나기로 선택한다.

시놉시스

“여긴 셔터가 반쯤 올라가서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숨 쉬기 편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방문을 잠갔던 기억을 가진 강수경은,
폐업한 편의점의 반쯤 열린 셔터 안에서 처음으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군 시절 5분의 빈틈으로 후임을 다치게 한 기억을 안고 사는 김민호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과거의 죄책감을 속죄하며 살아간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두 시간,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 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지키려 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각자가 갇혀 있던 시간을 마주한다.

그리고 “집”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대본

서울 지하철 6호선 청구역 대합실 구석. 폐업한 작은 상가(편의점). 셔터가 고장 나 반쯤 올라가 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선반과 카운터의 흔적만 남아있다. 벽에 낡은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 심야 시간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춘다. 가끔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밤 10시.

강수경이 셔터 안쪽, 카운터 뒤에 앉아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몇 가지 물건 들을 꺼내 정돈한다.

익숙한 동작.

김민호가 손전등과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난다. 새 자물쇠가 가방에 달랑거린다. 셔터 앞에서 멈춘다.

빛을 비춘다.

김민호 : 여기 왜 또 오셨습니까?

강수경, 천천히 고개를 든다. 놀라지 않는다.

강수경 : 안녕하세요.

김민호 : 매일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또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폐업한 상가임 니다.

강수경 : 알아요.

김민호, 공구 가방을 내려놓는다.

김민호 :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수경 : (계속 물건을 정리하며) 말해요.

김민호 : 오늘 자정에 이 상가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설팀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임시 봉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수경, 손을 멈춘다.

김민호 : (시계를 본다) 지금 10시입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강수경 : 뭐라고요?

김민호 : 상부 지시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일단 새 자물쇠 채워서 완전히 봉쇄하라고 했 습니다.

강수경 : (천천히 일어선다) 나 여기 사는데요?

김민호 : 사시는 게 아니라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시죠.

강수경 : 불법 점유요? 여기서 숨 쉬는 것도 불법인가요? 당신도 나 알잖아요.
매일 밤 순찰 돌 때마다 봤잖아요.

김민호 : 네. 어차피 폐쇄될 곳이니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수경 :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요.

김민호 : 어제 상부에서 CCTV 점검을 해서 발각됐고,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2시까지입니다.

강수경 : 난 안 나가요.

김민호 : (한숨)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수경 : 여기 있을 거예요.

김민호 : 불가합니다. (시계 본다) 12시까지에는 나가주셔야 제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수경 : (다가서며) 이곳이 내 집인데요.

김민호 :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강수경 : (목소리 높여) 난 여기 여름부터 있었어요.

김민호 : 여기는 공공시설입니다.

수경, 물건을 정리한다.

김민호 : 규정입니다. 나가주세요.

강수경 : (그를 똑바로 보며) 싫어요. 안 나가요.

김민호 :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계 본다) 1시간 50분 남았습니다.

강수경 : 난 여기서 좋아요.

김민호 : 여기는 상가일 뿐입니다.

강수경 : (작게 웃으며) 문이 반쯤 열려 있잖아요. 닫히지 않아서 좋아요.

김민호 : 무슨 뜻입니까?

강수경 : (그를 보며) 어렸을 때 내 방문을 아버지가 항상 잠갔어요. 여긴 셔터가 반쯤 올 라가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숨 쉬기 편해요.

김민호 : (조심스럽게) 다른 곳은 없으십니까?

강수경 : 다른 데는 공기가 너무 꽉 막혀요. 여긴 숨이 통하거든요.

김민호 : 하지만...

강수경 : 여기가 내가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른 곳이에요. 매일 밤, 여기서 악몽 없이 잤어 요.

김민호 : (시계를 보며) 10시 30분입니다.

강수경 : 알아요.

김민호 :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강수경 : (카운터 옆에 앉으며)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규칙을 지켜요?

김민호 : 그게 제 일이니까요.

강수경 : 일단 하면... 당신은 언제 쉬어요?

김민호, 대답하지 못한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도 공구 가방 위에 앉는다.

김민호 : (사이) 군대 시절 제가 초병 근무를 썼습니다.

강수경, 그를 본다.

김민호 : 새벽 3시. 너무 추웠어요. 잠깐만, 5분만 초소 안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모를 거 라 생각했죠.

강수경 : 그래서요?

김민호 : 그 5분 사이 후임이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철조망을 넘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강수경 :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김민호 : 제가 자리를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어요.

강수경 : 후임이 선택한 거잖아요.

김민호 : 제가... 제가 규정을 지켰다면...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침묵. 지하철 소리.

강수경 : 당신도 아직 그 시간에 살고 있네요.

김민호 : (손을 내리며) 뭐라고요?

강수경 : 나는 아직 아버지가 떠오르고, 당신은 후임이 떠오르고, 뭐 비슷하네

김민호 : 저는 후임을 잊었습니다.

강수경 : 아니요. 당신은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김민호 : 맞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정을 지키는 것을 속죄로 생각하며 지냅니다.

강수경 :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으면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요.

김민호 :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강수경 : 나도요.

김민호 : (시계 본다) 11시입니다.

강수경 : 1시간 남았네요.

김민호 : (일어서려다 망설인다) 정말 다른 곳은 없으십니까?

강수경 : 없어요.

김민호 : 제가 상부에 건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수경 : (고개 젖는다)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김민호 : 그래도...

강수경 : 당신도 알잖아요.

김민호, 천천히 고개 끄덕인다.

김민호 :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수경 : 모르겠어요.

김민호 : 자정에 여기는 폐쇄됩니다.

강수경 : 이막막함 당신은 모르죠?

김민호 :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수경 : 하긴 애초에 당신은 날 도와줄 수 없는데 이런 말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김민호 :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강수경 :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김민호 : (고개 들어 그녀를 본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강수경 : (쓴웃음) 잘못? 내 집이 없다는 거? 그냥 당신은 당신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김민호 : 하지만...

강수경 : (그를 똑바로 보며) 당신은 당신 방식을 지키고, 나는 내 방식을 지켜요. 그게 각자의 삶이잖아요.

김민호, 대답하지 못한다. 시계를 본다.

김민호 : 11시 30분입니다.

강수경 :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며) 사탕 먹을래요?

김민호 : 나가주십시오.

강수경 : 싫어요.

김민호 :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수경 : 당신이 선택하세요. 경찰 부르든지, 날 끌어내든지. 나는 안 나가요.

김민호 :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수경 : 그럼 문 잠그지 마세요.

김민호 : 그것도 안 됩니다.

강수경 : 그럼 우리 둘 다 여기 있어요.

강수경, 움직이지 않는다.

김민호 : 20분 남았습니다.

강수경 : 저녁 먹었어요?

김민호 : (공구 가방을 집는다) 경찰을 불러야 합니까?

강수경 : (그를 본다) 그러세요. 못 하겠죠?

김민호 : 날 조롱하는 겁니까?

강수경 : 맞아요. 나 안 나가요.

김민호 : (시계 본다. 손이 떨린다) 11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강수경, 여전히 앉아 있다.

김민호 : 제발... 나가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강수경 : 내가 왜 다친다는 거죠?

김민호 : 제가 셔터를 안 잠그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잠급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모릅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강수경 그를 본다.

김민호 : 제가 잠그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

강수경, 천천히 일어서서 셔터 밖으로 나온다.

강수경 : 나는 끝까지 안 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나와야겠네요. 여기가 당신 집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김민호 : 무슨 말입니까?

강수경 : 이제 보니 여긴 내 집이 아니라, 당신의 규정이 만든 집이네요. 이 집은 숨이 막혀요.

나가야겠네요. 규정 안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김민호, 그녀를 본다.

강수경 : (작은 미소) 당신 집 빼앗으면 안 되겠네요. 달으세요.

수경, 뒤로 물러선다. 민호, 천천히 일어서서 셔터를 닫는다. 자물쇠를 잠근다. 자물쇠 소리.

폐쇄 스티커를 붙인다.

강수경, 닫힌 셔터를 본다. 손을 뺀다. 문에 닿지 않는다. 손을 내린다.

민호, 공구를 챙긴다. 떠나려다 멈춘다. 뒤돌아본다.

강수경, 문을 바라보고 있다.

김민호 : 어디로 가십니까?

강수경 : 모르겠어요. 안전한 곳을 다시 찾아야겠죠.

수경, 가방을 집어 든다. 문을 한 번 더 본다.

민호, 말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다. 간다.

강수경, 천천히 걸어간다. 반대 방향으로.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무대에 닫힌 문만 남는다.

지하철 소리가 크게 들린다.

암전.

그 날 이후

작 · 안덕용

운동부 안에서 ‘팀’이라는 이유로 반복되어 온 침묵과 폭력.
연대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남는다.
작품은 우리가 당연하게 넘겼던 규율과 침묵을 다시 묻는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왔는가.”



시놉시스

한 때 함께였던 팀,
그러나 폭력과 침묵은 모두를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만든다.

재혁을 잃은 뒤에도 경기와 승리만을 향해 굴러가던 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균열과 마주한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남는다.

대본

어둠속에서 들리는 야구공 소리...탕...탕...탕- 서서히 조명이 밝아지면, 무대 뒤쪽 한 켠에 ‘하나된 팀 하나의 마음’ 이란 플랜카드가 보인다. 이후 조명 완전히 밝아지면 한쪽에 스윙 연습하는 그물망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야구공이 가득 담긴 연습 볼 박스,야구 글러브등이 놓여져 있다.
무대 뒤. 양쪽 끝에는 철제 캐비닛이 뒤로 연결 되어 있는것처럼 모퉁이 부분 한쪽만 드러나 있다.
하수 아래쪽 그물망 앞에서 스윙 연습하고 있는 민수와 상수쪽 위 구석에 앉은 채로 글러브에 공을 던지고 있는 지훈이 보인다.지훈의 모습은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고, 민수는 활기차 보인다.

지훈이 공을 글러브에서 빼서 철제 캐비닛에 신경직적으로 집어 던진다.

공이 캐비닛에 부딪쳐 광음이 난다.

민수 : (깜짝 놀라 베팅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며) 뭐하는거야?

지훈 아무말 없이 캐비닛 끝에 널부러져 있는 재혁의 유니폼을 바라본다
민수, 지훈을 힐끗 쳐다보고,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베팅 연습을 다시 시작한다

지훈 : 형...형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못들은척 배트를 휘두를 준비를 한다 ...
그런 민수가 못 마땅한듯 공을 더 세게 집어던진다.

민수 : (깜짝 놀라멈추며) 뭐! 왜! 뭐어!!?

(사이)

내일 시합이야! 내일이 어떤 시합인지 알지?

지훈 : ...

민수 : (답답해서) 모르겠냐? 너! 운동 몇 년 했어?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갈수 있어?
진짜 선수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취미로 운동만한 미련한 인생으로 남느냐!!
우리 모두 운명을 건 절체절명의 순간 이라고!! 이제 와서 야구 아니면 넌 뭐할래?

지훈 : 형...형은 그냥 그저 야구를 계속하는 것만 중요하구나

민수 : (폭발 직전이지만 꺾 눌러 참으며) 그럼 뭐가 중한데?
야구부가 야구 계속 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는데? 한가한 소리 그만해라!

지훈 : 어떤 선수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건 생각 안해 봤어요?
(플랜 카드를 가리키며) 우리 하나라며? 하나된 마음 이라며?

민수 : 그래 바로 그거야! 그 하나된 마음으로!
(분위기 바꾸며) 우리 내일 꼭
이기자!!응! 자~알 하자!
(민수는 다시 배트를 들려고 한다)

지훈 : (그런 민수를 보며) 저 글씨 볼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진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한거죠?
재혁이는...

민수 : (말을 자르며 강하게 소리 친다) 강지훈!! 조용히 안할래?
너! 이 팀에 오래 있고 싶으면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배트를 보며) 저거나 가서 쳐!! 잡 생각 없어 질때까지!
니가 아주 몸이 너무 편하지? 너도 힘들게 해줘?

지훈 : 형! 이대로 널 시합가면, 우리 이길수 있어요? 아니 이겨도 되요?

민수 : (배트를 집어 던지며) 너 그걸 말이라고해? 당연히 이겨야지!!
기필코 이겨야지!!보란듯이! 멋지게! 우리가 왜 다 참아 왔는데!
어떻게 견뎌 낸건데?!!

지훈 : (혼잣말 처럼) 참고, 견디고...

민수 : 그래! 참고 견디고!

지훈 : 모른척 하고...못 본척하고...

민수 : 뭐?...

지훈 : (작은 소리로 자조적) 지겨워...비겁해...

민수 : (지훈에게 달려 들어 잡아 세운다) 강지훈! 너 왜그래?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지훈 : (잡힌손을 뿌리치며) 형도 똑 같애!! 왜! 한대 쳐 보시지!
형도 똑 같이 해보라고!!(점점 강하게 소리치며) 나 한테도 재혁이한테 한것 처럼 신나게
해보라고!! 형은 주장이니까! 형이 한마디만 하면 다들 뛰어들어 올거 아냐!

민수 : 너 정말 왜 그래?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다같이! 운동하는 놈! 두들겨 패서 '병신'
만들었다고 광고라도 할래?
팀 해체 되고, 다 흩어져서 더 이상 운동 못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쩔건데?

지훈 : 말릴수 있었잖아요... 멈출수도 있었잖아요! 더 못하게 전부 말 할수 있었잖아!!

민수 : (먹살을 잡고 칠듯이 노려 보며) 그만 떠들어라!

*이때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코치가 들어오고, 민수는 재빨리 손을 놓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코치 : (수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뭐야?...분위기 왜 이래?
(지훈을 보고)우리 지훈이 컨디션 괜찮지? 내일 시합때는 스카우터들, 대학교 코치,감독들
다 모인다.
(민수에게 다가가서)아!그리고 주장! 내일 시청에서 점검도 나올 거야! 그리고 기자들도 잔뜩
올지 몰라!
(다시 지훈을 보며) 지훈아! 내일 큰 거 한방 부탁한다!!우리 4번 타자!!
(다시 민수에게 은밀히) 그리고,.. 누가 재혁이 얘기 물어보면, 그냥 연습중에 좀 다쳐서 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라.

민수 : (뭔가 말하려고 한다) 저...코치님...

한코치 : (말자르며) 그냥 내가 하라고 한대로 해!! 그럼되! 대학 안갈거야?
(윙크 하며) 내말 알아듣지?주장!

민수 : 네. 알겠습니다.

한코치 : (한코치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민수에게) 주장!
난 너만 믿는다.(민수와 지훈을 번갈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한코치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하고, 민수는 배트를 내려 놓고 지훈 옆으로 가서 털썩 앉는다.

민수 : (무거운 표정으로) 지훈아...
난 말이야... 다리가 부러지고, 입술이 다 터지도록 얻어 맞아도, 야구...
계속 하고 싶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팀을 위해서, 그냥 잊으면 안되겠니?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지훈 : ... (혼자말처럼) 평화롭게...형은 그래서 지금 평화로워요?

민수 : ...

지훈 :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 명이 나가고 나면, 우린 그냥 ‘그 친구가 문제였어’
‘그렇게 끈기가 없어서 어떡해?’ 그렇게 떠들어 대고 그냥 잊었잖아요.
개가 문제라고! 지가 힘들어서 못참고 나간거라고!...

민수 : (차갑게) 잘난체 하지마. 강지훈! 너 야구 좀 한다고, 다들 우쭐쪼 해주시니까
진짜 니가 뭐라도 된줄알아? (비꼬듯이) 너 진짜 멋있어 질라고 한다.
너두... 그때 있었잖아! 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냐구! 너도 동의 한거 아냐? 잘나가는 2학년 4번타자,
라이벌 한.재.혁.만 아니면 이번에는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

지훈 : (무너져 내린다) 형... 저...이제 못 참겠어요...

민수 : 이제 와서? 결승이 코 앞인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팀은 어찌되든 당장 니 양심만 바로
잡으면되는거야? 비겁 한 건 너야! 그래 그때는, 우리 모두 재혁이만 없어진다면 다음에는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 라고 믿었어! 다들 비슷 비슷 할때니까, 그래서 그 녀석이 코치님 눈에서 멀어지기만
기다렸고,실수 하기만 기다렸어! 그러다 슬럼프다 뭐다, 헤메고 있을 때! 그렇게 코치님 눈에서
조금씩 멀어져 갈때,... 다 같이 뛴아 줬다! 조금 다쳤다고 했을 때는,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지! 지가 그런거야. 스스로 포기 한 거라고!

지훈 : 형! 저처럼 한때 라이벌 한테 배신당하는건 배신이 아니예요. 믿고 좋아하던 사람한테 당하는거...
그게... (사이) 재혁이는 우리팀에서 형을 제일 좋아 했어요...친구인 저보다도, 하나된 팀 주장
한민수를 가장 믿었다구요...처음 이 아니 잤아요...이번 한 번만 그런거 아니잖아요...
벌써 몇 명 째예요? 몇 번 째냐구요?...

민수 : 그래서 지금... 니가 4번타자 된거 잤아! 왜? 이제 와서 미안해?
그 동안 입 딱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야 야구 좀 하고 주목 받으니까, 진짜 영웅이라도 되고 싶어?
정의의 사도 나셨네!!

지훈 : 또 그러겠조? 무서워요...언젠가는 강지훈 그 자식도 결국 못 참고 포기 하네.
한재혁 대타만 하던 놈이 4번 타자 되니까, 우쭐해서 까불더니 결국 자기도 못 살아 남네!..

민수 : 그건 니 몫이지... 우리 그냥 관성대로 살자!! 하던데로 살자고! 운동부에서 좀 때리고, 열차려 주고
한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너도,나도 우리 모두 다! 잘 참아 왔잖아!

지훈 : 이걸 참는게 아니예요... 견뎌야 되는 것도 아니구요.

(긴 사이)

민수 : 그래서...어쩔건데?

지훈 : ...

민수 : 어쩔꺼냐고?

지훈 : (천천히 일어난다) 형은 언제까지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하나된 마음으로,,,

지훈은 뭔가 결심한듯 앞을 응시 하다가 천천히 퇴장 한다.

민수 : 너 진짜!... (지훈이 나간쪽을 바라보며 있다가 털썩 주저 앉는다)
(복잡한감정이 몰려온다) 나도...말리고 싶었어.. 나도...너무 싫었어...
하지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 했어. 우리 팀을 위한 거라고,
튀고 혼자 잘하는 놈은 필요 없다고...팀에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만 우리 팀이라고...

(긴 사이)

내가 말하면 끝날까?...

조명 민수의 얼굴에서 천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에 남은 하나된팀,하나의 마음 플랜카드와 구겨진 유니폼만,남는다...

암전.

백분토론

작 · 김은균

〈백분토론〉은 생방송 직전의 극도로 압축된 순간 속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던 인간의 얼굴을 현실적으로 포착한 드라마다.

단 10분 동안 토론자·작가·조명기사·PD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얽히며, 좌파·우파 논객의 가치 충돌, 계약직 작가의 불안, 방송 시간을 맞춰야 하는 PD의 압박, 조명기사의 직업적 자존심이 한순간 맞부딪힌다.

어떤 이는 말을 앞세우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며,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수습한다.



시놉시스

생방송 직전, 논쟁은 이미 시작돼 있다.

갈등이 정점을 찍는 순간 조명이 꺼지고,

공간은 잠시 멈춘다.

고장 난 휴즈를 갈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정리되고, 스튜디오는 평온하게 생방송을 시작한다.

불과 몇 분 전의 긴장 따위, 없었던 것처럼.

대본

스튜디오 내부.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허미나 작가만 어렵풋하게 감지한다.

모니터·대본 번갈아 보며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른다

허미나 작가 : …또 젖었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좌파&우파 논객은 서로 노려보고 있다,

한예슬 조명기사가 조도계 숫자를 힐끗 확인한다.

주조정실.

전체 흐름을 켜 조현아 PD가 큐시트지를 보면서 전체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조현아 PD : 스튜디오 지금부터 생방송 10분 남았습니다.

허미나 작가 :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허미나 작가 : 두 분 지금 생방송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리허설 때처럼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해주세요.

말 끝나기전에 조명이 한 번 더 깜박

허미나 작가 : …어? 이상하네. 조명이 왜 하나만 깜박거리는 것 같지?

한예슬 조명기사 등장.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른 한 손엔 휴대폰 만지작

한예슬 조명기사 : 아니라니깐 5핀이 아니고 3핀 쓰라니까.

아몰라, 나 방송 들어가야 돼. 끊어

허미나 작가 : 예슬씨… 조명이 좀… 깜빡이는 거 같지 않아요?

한예슬 조명기사 : 원래 그래요. 기계도 사람처럼 컨디션이 있어요.

때로는 왔다갔다 하니깐 걱정 마세요.

아직 안 졌어요.

허미나 작가 그 말이 이상하게 박힌다.

허미나 작가: ...네?

허미나 작가의 호흡이 가빠진다.

조명은 이번엔 말짱하다. 스튜디오 안 공기는 이미 달궜어 있다.

김유미 논객 : 엘리베이터 없는 역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그건 권리를 양보하는게 아니라 아예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박정희 논객 : 아니, 세상 일을 다 권리로 해결할 순 없잖아요.

김유미 논객 : 이동권이야말로,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 아니예요?

박정희 논객 : 명동 같은 곳은 지하 구조가 복잡한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가게 몇 개를 들어내야 한다고요.

김유미 논객 : 들어내면 되죠.

박정희 논객 : 허 참, 명동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김유미 논객 : 그 현실이란 말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현실인가요?

허미나 작가 : 두 분,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싸우시면~ 저 피디님한테 죽어요.

김유미 논객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박정희 논객 : 거 참나

김유미 논객 : 이동권이야말로 장애인에게 절대적인 권리에요!

국가에서 명동땅을 기증체납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요새는 공법이 발달돼서 땅도 그다지 많은 평수가 필요한게 아니예요.

의지의 문제죠

박정희 논객 : 현실을 모르시네.

김유미 논객: 에? 현실요?

박정희 논객 : 명동 땅값이 얼마줄은 아세요?

뉴욕도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진 못했어요.

김유미 논객: 여기서 뉴욕애기가 왜 나와요?

박정희 논객 : 이봐요. 김유미 논객!

김유미 논객: 네 박정희 논객님.

허미나 작가 : 제... 제발, 잠깐만...

김유미 논객 :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니요?

한편, 주조정실.

상황을 지켜보던 조현아 PD는 실수로 전체 마이크에 대고 소리지른다.

조현아 PD : 야!!!! 허미나! 지금 뭐하는 거야!!!! 톤 조절 똑바로 안할래?

다 집합이야, 끝나고 다 집합해!!!!

그 순간 조명이 ‘딱’하고 나가 버린다.

김유미 논객 : 와... 진짜... 이게... 방송국 수준봐라?

허미나 작가 : 죄송합니다.

박정희 논객 : (함께 비웃으며) 기본 점검도 안 됐는데, 무슨 장애인복지 토론을 한답니까?

허미나 작가 : ...죄송합니다.

박정희 논객 : 이게 현실이죠.

허미나 작가 : 정말 ...죄...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 발소리를 ‘터덕 터덕’ 내면서 한예슬 조명기사 걸어온다.

한예슬 조명기사 : 아 ~ 아까부터 헤롱헤롱 거리더니 진짜 나가버렸네...

조명기를 살펴본다.

한예슬 조명기사 : 이거 조명휴즈가 나간거잖아.

이런 경우는 종종있어요.

토론이 과열돼서 조명도 열받은 겁니다.

김유미 객 : 지금 농담하세요?

박정희 객 : 누구 놀려요? 놀려?

한예슬 조명기사 장비 커버를 푼 열고, 휴즈 한 장을 갈아 끼운다.

바로 조명이 다시 깨끗하게 살아난다.

조현아 PD : 자 좋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모두 자세 바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탠바이.

박정희 객 : (헛기침)…아까는 제가 좀 목소리가 컸네요.

김유미 객 : 저도요. 저희 싸운 거 아니잖아요. 뜨거운 논쟁을 한거지.

허미나 작가 : 네… 지금… 톤 너무 좋아요…그대로 가시면… 진짜 좋습니다....

한예슬 조명기사 : 이제 조명은 안 죽습니다.

조현아 PD : 카운트 들어갑니다.

좋아, 다 준비됐지?

스탠바이! 카메라 쓰리, 투, 원! ...큐!

붉은 ‘ON AIR’ 불빛이 켜지고, 웅장한 백분토론 시그널 음악이 경쾌하게 흘러나온다.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백분토론이 500회 특집을 맞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먼저 우측에 박정희 객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는 김유미 객 나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막.

동그라미발레리나

작 · 권민

연극 <동그라미 발레리나>는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어른이 되어 더 못하게 된..
긴장과 갈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어린이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창작극이다.

“자, 여기”, “내가 제일 재미있어 했어”



시놉시스

세 명의 여자 초등학생이 무용 발표를 앞두고,
서로의 생각과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예민해져 있다.

엄마가 바쁜 나현, 배려심 많은 소원, 당당하고 적극적인 수연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용 발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 상황속에서도....

대본

무대 뒤, 발레 발표 전, 3명의 여자 초등학생이 대화를 나눈다.
나현은 스트레칭, 칼을 휘두르는 동작, 수연은 거울을 보며 동작 연습하고 있다.
소원은 가방에서 뭔가 찾고 있는 멈춤 자세.

<장면 #1 - 무대 뒤>

나현 : (거울 보고 스트레칭, 칼을 휘두르는 동작하면서...)
수연아, 연습 많이 했지?
마지막 연습이니까 잘 하자.

소원 : (수연을 보며) 신발은 맞아?

나현 :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셨겠지...(시기 어린 말투)

수연 : 뭐, 괜찮아. 그런데 옷이 조금 작아진 듯...

나현 : 옷이 작아진게 아니고, 네가 커진거야!

소원 : 괜찮은데 뭘...

수연 : 뭐, 괜찮네(약간 속상함).

소원 : 참, 나현아 엄마가 끝나고 너 데리고 오래.
우리 엄마 차, 같이 타고가야 한데.

나현 : 알아(핸드폰 카톡하며... 통명스럽게).
(가방을 뒤지며)
엄마가 가방에 넣었다고 했는데? 소원아, 충전기 있어?

소원 : 충전기? 없는데?

나현 : (핸드폰 보며, 불안해하면서) 어찌지? 배터리가 얼마 없는데...

수연 : (거울보며 어려운 회전동작, 성공하고 웃으며) 역시~ 멋져.

나현 : 뭐가 멋지냐?(약간 큰 소리로, 통명스럽게)

수연 : 응? 뭐가. 왜 그래?

소원 : 나현아, 너한테 그런거 아냐!

나현 : (수연이는 안보면서 들으라고)
재는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왜 꼭 발레를 한다는거야?

수연 : 야! 내 맘이지!(나현이 향하여 소리치다가)

수연. 약간 속상해하며... 하늘을 본다. 회상한다. 열게 암전. 동작 모두 멈춤

회상(녹음한 목소리만 나오게, 밝은 목소리로, 당당하고, 대범하게)

엄마 : ‘수연아, 발레를 꼭 하고싶어?’

수연 : 응. 엄마, 재밌고 멋있어보여.

엄마 : 그래? 그럼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재밌고 멋있어 보이니까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연습하는거다.

수연 : 응. 그렇게.

나현 : 야! 어떤 애가, 너는 항아리가 구르는 것 같데.

수연 :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만족하고, 재밌으면 됐지.

나현 : 너만 재밌으면 다냐? 연습해서 잘 해야 될거 아냐!!

수연 : 연습? 재미있게 많이 했거든?

소원 : 애들아, 이제 시간 얼마 안남았어. 그만해. 나현아, 근데 너 칼은 어디다 두었어?

나현 :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어? 어딴지?
(여기 저기 둘러보며, 조금 이동하다가) 소원아, 네 가방에 없어?

소원 : 잠깐만...(가방을 뒤져보다가) 아니.

수연 : (모서리 구석에서 발견하고 뛰어가 갖다주며) 여기.

나현 : (머뭇거리다가 받아서 챙기고, 잠시 수연을 옆으로 보기만한다)

(암전. 무대 변경)

<장면 #2 - 무대 위>

목소리만 (원장님) - 다음은 <동그라미 세상> 팀 나오세요,

1~2분. 음악이 흐르고,

3명의 어린이가 ‘호두까끼 인형’ 발레 장면을 한다.

무용 상황

소원, 나현 - (연습한대로 실수 없이 잘한다)

수연 - 1. 약간 오버(동작 크게, 표정 과하게)하며 움직인다.
2. 두 번 실수한다(눈 크게 뜨며, 소리 없이 웃으며 재미있어 한다).
3. 끝까지 인사를 큰 동작으로 한다.

목소리만 (원장님) - 나현, 소원 수연 오늘 잘했어. 다음주 수요일에 발표 잘하자. 알지?

나현,소원,수연 : 네.

목소리만 (원장님) - 그래. 자기 물건, 소품, 잘 챙기고, 잘 가. (*재잘거리는 소리)
다음팀 준비됐나요? <웃음 꽃> 팀 나오세요. 천천히

암전 (*재잘거리는 소리. 천천히 줄어들기)

소원 : 다들 소품 잘 챙겼지?

나현 : 와아, 소원이 연습 많이 했구나. 잘하네.

수연 : 나현아(가방과 다른 물건을 챙기면서). 너도 잘하던데?

<장면 #3 - 무대 앞>

수연 엄마 : (박수치면서)이야~ 우리 나현이, 소원이 정말 잘하네.
아주 아주 멋있었어(엄지척 보여주며). (잠시 후) 수연이는 재밌었어?

수연 : (밝게 웃으며)응. 내가 제일 재밌었어? 난, 키가 작지만, 예쁘잖아 (당당하게).

소원 : 우리 엄마는요?

수연 엄마 : 주차를 멀리해서 차가지고 오신대.
그래, 이제 가자. 나현이 엄마가 피자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나현 : 우리 엄마 왔어요?

소리와 목소리만 까둑! 영상 전송

나현 엄마 : “수연 엄마, 나현이 영상 고마워요. 일이 이제 끝났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우리 나현이 좀 챙겨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수연 엄마 : 그럼~ 다 보셨지. 맛있는 피자집에서 자리잡고, 기다린다고 하셨어.

나현 : (크게, 활짝 웃으며) 정말요? (수연 엄마 퇴장)

모두 천천히 제자리 앞으로 조금 걸다가

나현 : (망설이다가) 수연아, 칼 찾아줘서 고마웠어. 아까 뭐라고 한건...(3초 시간 두고) 미안해.

수연 : (웃으며) 응. 나도 연습할 때, 실수해서...(3초 시간 두고) 미안해.

나현 : (웃으며) 그래? 그럼 쌤 쌤.

소원 : 야아, 배고파. 우리 빨리, 피자 먹으로 가자.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큰 동작으로 팔을 저으며,
환하게 웃으며 퇴장*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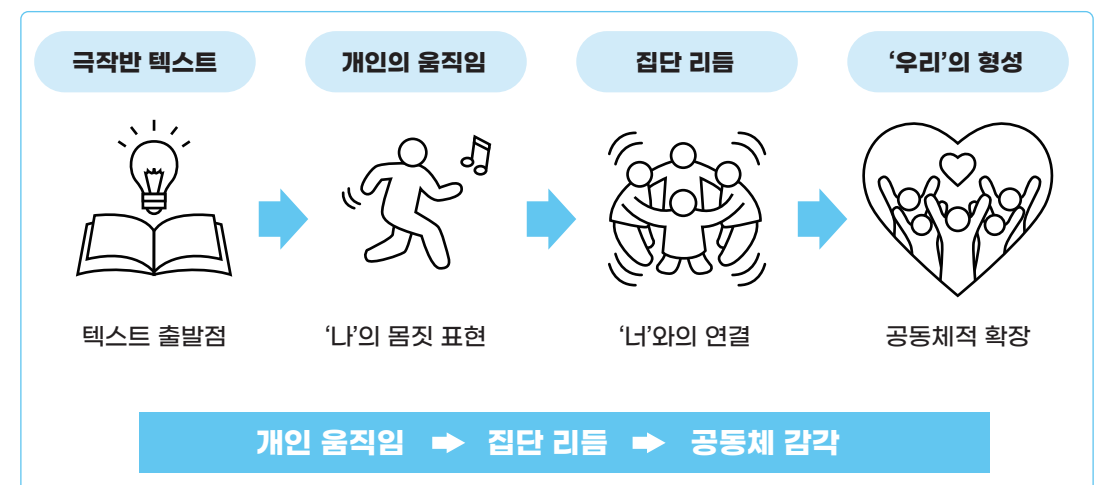
우리의

움직임 퍼포먼스

극작반에서 나온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집단 움직임을 기반으로 구성한 퍼포먼스
개인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의 흐름과 만나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속도를 감지하며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형성된다.

<UP & DOWN> / 작·김하성

박상이
박혜빈
이기창
이상아
이재국
조성연
조은누리



UP & DOWN

작 · 김하성

일상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순간들을 ‘리듬’과 ‘몸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 드라마 무용극이다. 각 인물이 가진 업(상승하는 순간)과 다운(추락하거나 멈춰 버리는 순간)이 충돌하며, 감정이 몸에 어떻게 스며들고 표현되는지를 섬세한 동작과 공간 연출로 보여준다. 특히 다운증후군 캐릭터의 시선을 통해 ‘느린 속도’ ‘기다림’ ‘오해’라는 감정적 요소가 무용적으로 재해석된다. 단순한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를 지닌 사람들 사이의 이해·충돌·화해를 다루는 작품이다.



시놉시스

느끼는 속도의 차이.

이름이 불렸을 때 찾아오는 작은 업,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다운이 섬세한 움직임으로 무대 위에 흐른다.

빠르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속도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간다. <UP & DOWN>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기다린다’는 행위의 의미를 되묻는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언젠가 서로의 리듬이 포개지는 순간, 진짜 ‘업’이 시작된다

장면 1. 지우의 세계

배경-어두운 무대 중앙, 한 줄기 부드러운 빛
음악-심장박동처럼 느린 피아노 리듬 (BPM 60)
조명-따뜻한 주황빛

- 지우가 무대 중앙에 서 있다.
- 몸 전체가 천천히 흔들리며, 숨을 따라 리듬을 만든다.
- 손끝으로 공기를 만지듯, 세상과 처음 대화한다. → 이때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매우 진실하다.
- 조명은 지우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천천히 퍼진다. → “그의 느낌이 세상을 깨운다.”

장면 2. 규칙의 세계 속으로

배경-연극부 연습실
음악-메트로놈 같은 규칙적 박자 (BPM 100)
조명-흰색, 차가운 직선형 조명

- 단원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 각진 팔, 정해진 선, 완벽한 동시성 — “사회적 규범”의 상징.
- 지우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
- 그가 움직일 때마다 리듬이 느려지고, 팔의 곡선이 부드럽게 변한다.
→ 단원들의 리듬이 조금씩 ‘흔들림’을 보인다.
→ 지우는 틀을 깬다. 하지만 그 틈에서 따뜻함이 스며든다.

장면 3. 느낌의 언어

배경-연습 중단 후, 혼자 남은 지우
음악-현악기의 낮은 울림
조명-반원형 스포트라이트

- 지우가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본다.
- 손끝을 볼, 가슴, 머리에 대며 천천히 움직인다. → 감정을 손끝으로 읽는 듯한 움직임.
- 느리지만 정확한 호흡.
- 관객은 “지우의 몸이 감정의 언어를 말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 그의 느낌은 ‘불편함’이 아닌, ‘감정의 깊이’.

장면 4. 충돌 - 세상의 속도와 감정의 속도

배경-복도
음악-빠른 드럼 리듬 + 지우의 느린 테마가 겹침
조명-빨간빛과 파란빛이 교차

- 민재(리더)가 강한 동작으로 ‘정확한 속도’를 요구한다.
-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속도로 춤춘다.
- 두 리듬이 부딪힌다.
- 순간 조명이 깜빡이며 모든 리듬이 멈춘다.
→ 세상은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장면 5. 감정의 빛 (지우의 슬로)

배경-완전한 암전에서 시작
음악-하프 + 첼로 + 어린아이의 숨소리 같은 코러스
조명-얼굴 중심의 따뜻한 빛이 서서히 커진다

- 지우는 천천히 손을 펼치며 자신의 ‘리듬’을 찾는다.
- 몸의 모든 움직임은 감정에 직접 반응한다.
- 울다가 웃는 표정, 떨리는 손, 가슴을 두드리는 제스처.
→ 이 장면은 다운증후군의 감정 순수성을 극대화한 클라이맥스.
- 그는 언어 없이 말한다. “나는 다르지만, 나는 아름답다.”

장면 6. 공감의 확산 - 하린의 손

배경-어둠 속 한 줄기 빛
음악-두 개의 피아노 선율 (지우의 느린 리듬 + 하린의 일정 리듬)
조명-빛이 점점 넓어지며 두 사람을 감싼다

- 하린이 조심스레 다가온다.
- 손끝이 닿는 순간, 두 리듬이 하나로 합쳐진다.
- 하린이 지우의 리듬에 몸을 맞춘다. →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리듬에 적응하는 장면.
- 이때 음악도 지우의 속도에 맞게 느려진다. → 세상이 그의 박자에 맞춰간다.

장면 7. 공존의 춤 - “Up”

배경-무대 전체
음악-오케스트라와 전자음의 결합 (BPM 80 → 100 상승)
조명-따뜻한 금빛으로 점차 변화

- 민재와 단원들이 하나둘 무대에 합류.
-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비틀리지만, 점차 지우의 곡선을 따라 춤춘다.
-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같은 감정을 표현한다. → 다름이 하모니가 되는 장면.

장면 8. 감정의 언어 - 엔딩

배경-무대 중앙
음악-느린 피아노 + 어린 합창단의 “Ah...”
조명-황금빛 스포트라이트

- 지우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린다.
- 하린과 민재가 양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올린다.
- 세 사람의 손끝에서 빛이 흩어진다. → 관객석으로 빛이 번지며, 객석 전체가 “Up”이 된다.
- 마지막 포즈: 지우의 두 눈이 관객을 향한다.
조용한 미소.
→ 그의 존재 자체가 “감정의 언어”.

본 결과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대본은 참여자의 저작물로 저작권은 각 참여자에게 귀속되며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에필로그 1. 미니인터뷰

나와 너와, 우리의

도전은

_____입니다.

권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플레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이에 뮤지컬을 더해, 관객 모두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제 도전입니다.

김은균

휠체어를 타다 보니 호흡이 짧아져서 하모니카를 시작하게 되었고,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글 쓰는 재주도 생겼습니다.
올해는 어디서든 제 글이 ‘글로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도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무용극을 쓰는 것이 제 도전입니다. 예술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극작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 배우고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 큰 도전입니다.

안덕용

요즘은 제 이름으로 극작을 시작하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석하던 때와는 또 다른 행복한 도전의 시기입니다.

유두선

특별한 도전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이 되든 무대가 되든,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마음껏 해보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에 도전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연기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잘해보고 싶습니다.

박정섭

첫번째로는, 청인과 농인이 함께하는 공연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두번째로는, 드라마나 영화에 농인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배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찬미

장애인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꿈임 없는 도전입니다. 탐이 날 정도로 예쁜 접시가 있다고 만지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접시가 깨진다고 해도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가서 만지고 또 만지면, 저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 오늘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배우입니다.

임윤희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뮤지컬,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싶다는 꿈이 생겨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비장애인 배우들이랑 비교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당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장애인 배우들만큼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 라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저의 지금의 큰 도전입니다.

정유미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즐기자’
낯가림이 심하지만 무대 위에서 자신을 더 드러내며, 부끄러움 대신 무대를 즐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연

얼마전, 여행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하루하루 큰일 없이 잘 지내는 것 역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한태희

액션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현정희

빛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상이

즐겁게 활동하며, 접영 종목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공연 속에서 서로 눈 맞추고 양보하며 함께 호흡하는 것이 저의 도전이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기창

이름 수업 듣는 것이 즐겁고, 학교에 다니는 일 자체가 저의 도전입니다.

이상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연극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재국

춤출 때 특히 즐겁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게임)를 잘하는 것이 저의 도전이자 자랑입니다.

조성연

영화 촬영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촬영 순간들이 즐겁고,
이병헌, 정우성, 이종석, 성동일, 임원희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배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조은누리

오늘은 무척 즐거운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2. 참여자 수업일지

나와, 너와, 우리의 기록

○ 수업일지

- 수업 직후 또는 수업 당일 참여자 직접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함
- 별도 검사 및 평가 없이 개인 기록을 목표로 함

● 일지 작성 목적

- 과정 기록: 회차별 수업의 흐름과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교육 과정의 추적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 변화 관찰: 참여자의 반응, 태도, 표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함으로써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
- 성과 검증: 교육의 효과와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결과보고 및 아카이빙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운영 개선: 수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과제를 바탕으로 이후 교육 운영과 커리큘럼 보완에 활용한다.

● 주요 성과

수업일지는 수업 과정에서의 개인 상태와 변화를 자유롭게 기록한 자료로, 초기의 불안과 어려움에서 출발해 점차 개인의 예술적 시도와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지에는 완성도나 평가보다는 참여자가 수업 과정 안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심으로 나타나며, 이는 교육 과정이 결과 이전의 경험 축적 단계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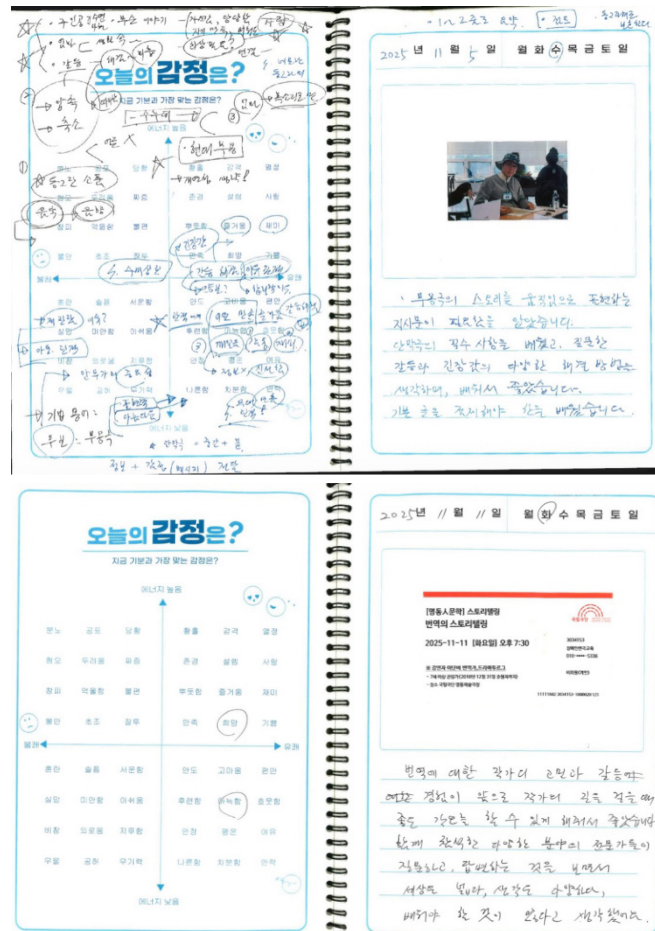


대표사례 1 (극작_권민)

• 권민 “배움에 대한 기쁨과 몰입”

권민 참여자는 개인 일정으로 인한 1회 불참을 제외하고 전 회차에 성실히 참여하며, 특별 교육을 포함한 전체 수업 과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였다.

- 일지에서는 수업 내용을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질문·메모·정리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확장해 나가는 학습 태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 회차가 거듭될수록 감정 기록에서 ‘여유’, ‘재미’, ‘기대’ 등의 표현이 늘어나며, 본 교육 과정을 배움의 기쁨과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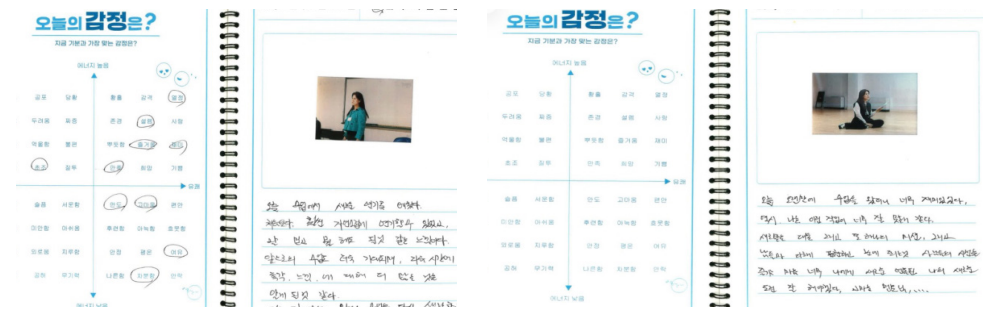


대표사례 2 (연기_김미나, 박찬미)

• 김미나 “감정과 상태를 인식하며, 자기 이해 확장”

김미나 참여자는 연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지에서는 수업 중 느낀 감정과 신체·시선·집중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연기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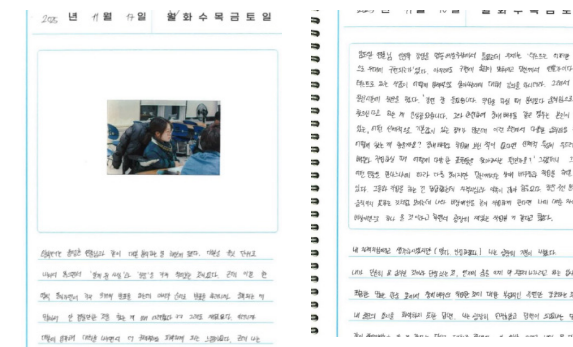
- 회차가 거듭될수록 연기에 대한 부담은 줄고 ‘재미’와 ‘자연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며, 수업을 통해 자기 이해가 확장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변화가 확인된다.



• 박찬미 “장애·정체성·예술가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질문한 사례”

박찬미 참여자는 강연과 수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배우로서의 위치를 깊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 일지에서는 강연에서 제시된 질문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며, 장애·편견·예술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확장해 나가는 사고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특히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었던 인식이 흔들리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며, 본 교육을 통해 자기 이해와 책임감을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대표사례 3 (움직임_박혜빈)

• 박혜빈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과 관계적 안정감을 형성”

박혜빈 참여자는 움직임 수업에 참여하며 신체 활동 속에서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 일지에서는 수업 과정에서 느낀 설렘과 기쁨, 타인과 함께 움직이며 형성된 편안함과 기대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특히,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활동도 ‘즐거웠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표현으로 변화하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기록은 움직임을 매개로 관계적 신뢰와 정서적 안정을 쌓아간 의미 있는 변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과정(전문예술교육 연극)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6.1.

발행인 방귀희

발행처 (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획/운영 김선형, 허유진, 김수정, 김가영

공동기획/운영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편집 서미정, 김정연

디자인 최소진





9 791199 117877
ISBN 979-11-991178-7-7
ISBN 979-11-991178-4-6 (세트)

